

완도産 전복, 홍콩 현지인 입맛 잡는다

아시아 첫 ASC·郡 역점사업 홍보 해외시장 판로 개척 국내 수산업·양식업 소개...광어·해조류 인증 확대 계획

아시아 최초 ASC 인증을 획득한 완도 전복이 홍콩 시장 공략에 나섰다.
완도군은 13일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홍콩 현지에서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아시아 최초로 완도의 14개 전복 양식 어가에서 획득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와 군의 역점 사업을 홍보하고 완도 수산물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된 시장 개척 활동은 완도군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완도군의

회, 기업체, 완도군의 11개 ASC 인증을 받은 어가들이 함께 협력해 완도산 수산물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군은 첫 일정으로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주최하고 완도군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주관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통한 서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워크숍'에 참가했다.
워크숍에는 세계양식관리협회(ASC) 홍콩 관계자와 전문가, 홍콩농어업보전

국 관계자, 한스사이텔재단 한국사무소 연구원, ASC 인증 어가 및 신청 어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완도군 신우철 군수는 한국의 수산업 현황, 완도군의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 및 노력과 전복에 이어 광어, 해조류 등의 ASC·MSC 인증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WWF 홍콩 본부의 글로리아 선임 연구원은 홍콩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WWF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며 "완도군의 수산물 국제 인증 획득 정책과 지속적인 친환경 어업을 위한 노력에 큰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 완도와 WWF 홍콩이 협력해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국제식품박람회장의 완도군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국가별 식품관을 참관하고 수산물 전문 바이어들에게 완도의 ASC 인증 제품 홍보와 세계 수산물 식품 시장 분석에도 나섰다.
홍콩식품박람회(HOFEX)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 최대의 식품 박람회로 48개국, 1천900개 업체, 3만8천명이 참가하는 등 아시아의 선도적인 식품 박람회 중 하나다. 박람회 참관 후에는 홍콩 윌슨그룹 벤연잉 회장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인 시티슈퍼와 글로벌 호텔체인 리츠 칼튼 및 홍콩 방송국인 TVB Big Channel 관계자 등 50여명을 초

다"고 말했다.
이러한 홍보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 자리에서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되는 2021년까지 전복은 100여개 어장으로 A



신우철 완도군수가 최근 열린 홍콩식품박람회를 참가해 아시아 최초 ASC 인증을 획득한 완도 전복을 현지에서 소개하고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신우철 군수가 홍콩식품박람회장을 둘러보는 모습. /완도군 제공

S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전복뿐만 아니라 완도의 명품 광어, 해조류에도 ASC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해수부 차관, 강진 서중항방문 '어촌뉴딜300사업' 점검·간담회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이 최근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진군 서중항 현장을 방문 해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을 보고 받았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날 김 차관은 서중항 현장 점검 후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차관은 "어촌뉴딜300사업은 정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으로, 어촌 고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려 특색 있고 쓰임새 있는 명소를 조성하겠다"며 "어촌의 혁신 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중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65억원이 투입된다. /강진=정영록기자



영암군이 영암 생태 숲 및 기찬랜드, 목재문화체험장 일원에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아 숲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 제공

함평군, 새끼우렁이 76t 공급 7억5천만원 투입 4천205농가 지원

함평군이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벼농사 제조용 새끼우렁이를 공급한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군은 총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투입해 관내 4천205농가 6천317ha에 벼농사 제조용 새끼우렁이 76t을 지원한다. 새끼우렁이 농법은 제조 대신 새끼우렁이의 초식 특성을 이용해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피·물달개비 등 일반 잡초는 물론, 제조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잡초까지 99%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평군은 올해 지원 면적이 함평 전체 식부 면적의 83%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친환경 농업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신재현기자

영암군, '유아 숲 유치원' 프로그램 호응

32개 기관 2천100명 참여...매년 체험인원 증가

영암군이 올해도 아동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유아 숲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 눈길을 끌고 있다.
영암군은 13일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암 생태 숲 및 기찬랜드, 목재문화체험장 일원에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체험활동으로 숲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2013년부터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신체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되는 '숲 유

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2016년부터는 매년 70회, 1천여명 이상으로 참여 인원이 확대됐고 지난해는 32개 기관, 2천100여명이 넘는 유아들이 참여하는 등 매년 체험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3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참여교육기관과 숲 체험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유아들이 숲에서의 자유놀이 시간, 숲을 산책하며 다양하게 만나게 되

는 동식물들과의 오감체험, 계절별 자연환경과의 대면 등 자연스런 교감을 통해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으로 참여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은 참여 유아들의 연령대에 맞게 '나비랑 북치며 노래해요', '나무로 그림을 그려요', '나뭇잎 탁본뜨기', '술방울 던지기', '숲속 보물찾기' 등 숲속의 수목물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기자

영광진로체험지원센터, 청소년 탐험활동

도전정신·성취감 증진, 공감·소통능력 배양

영광진로체험지원센터(센터장 국형진)는 최근 영광군 관내의 한 캠핑장에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및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탐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탐험 활동에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인증과정에 도전 중인 37명의 청소년들과 포상담당관 선생님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조를 구성해 목표설정과 계획을 세우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도전 학생들은 12km 구수산 코스(캠핑장→구수산 정상)와 대덕산 코스(캠핑장→대덕산 정상),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도전 학생들은 10km 구수산 코스(캠핑장→구수산 정상)와 자전거길 코스(캠핑장→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각각 5시간에 걸쳐 완주했다.

탐험 활동을 통해 참가 청소년들은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전하고 성공하면서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증진하고 자연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배웠으며 다양한 활동 후 소감 발표와 나눔 시간을 통해 친구들과의 공감과 소통 능력도 배양했다.
캠핑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일교차가 커서 활동하는데 많이 힘들었고 친구들과 같이 탐험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같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했을 때 너무 기뻐했다"고 말했다.
영광진로체험지원센터 국형진 센터장은 "10년이 넘도록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을 못 찾았기에 학생들과 함께 올해도 걸고 또 걷는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나주 영산자율방범대 '으뜸 자율방범대' 선정

나주 영산자율방범대가 올해 1/4분기 '으뜸 자율방범대'로 선정됐다. <사진> 나주경찰서는 최근 영산파출소에서 으뜸 자율방범대로 선정된 '영산자율방범대'에 인증기 수여, 우수대원 1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으뜸 자율방범대'는 지역 최일선에서 경찰과 함께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해 범죄 예방 활동과 범인 검거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영산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순찰 등 지역치안 협력, 각종 행사 시 교통관리, 청소년 선도활동, 여성대상 범죄예방 활동 전개 등 전반에 걸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경제 나주경찰서장은 "이번 으뜸 자율방범대 선정으로 공명체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민·경 협력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경찰 치안 업무에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나주=정종환기자



임야 급매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